

**[P4-6]**

**과일 채소 및 육류 섭취와 유방암 발생 위험 : 환자-대조군 연구**

도 민희, 김 현자, 이 상선, <sup>1</sup>정 파종, <sup>2</sup>이 민혁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1</sup>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 <sup>2</sup>순천향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

한국에서의 유방암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2000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암 중 유방암은 위암 다음으로 2위의 발생률을 나타내어 여성 암 중 15.3%를 차지하고 있다. 유방암의 위험 요인 중 식이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보호인자로, 육류 섭취를 위험인자로 보고하였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식품 섭취와 유방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과 채소 과일 및 육류 섭취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 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로는 3차 진료 기관인 서울 시내 2개의 대학 병원 일반외과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108 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였고, 환자군과 동일 기간에 동일 병원의 일반 외과, 성형 외과 및 안과에 내원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환자 군과 폐경 상태 및 연령(4세 차)이 맞는 자(n=121)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3년전 1년 동안의 식품 섭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과일, 채소 및 육류 식품 총 18개 종류의 섭취빈도와 양을 조사하였다. 설문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10.0로 통계 처리하고, 각 변수들에 대해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폐경에 따라 각각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경우 유방암과 식이 요인과의 분석시 혼란 변수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보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혼란 변수로 나타난 요인으로는 유방암의 가족력, 음주, 운동, 수유력, 임신력 및 체질량 지수 등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29명으로 폐경기 전의 여성이 총 대상자의 55.46% 였으며 유방암 발생이 가장 높은 연령 층은 40대와 50대였다. 분석 결과, 과일 중 포도(OR=0.43, 95% CI=0.28-0.93, low vs medium)와 채소 중 고추(OR=0.38, 95% CI=0.29-0.77 low vs high) 섭취가 폐경 전 여성에서 유의적으로 유방암의 발생을 낮추는 보호인자로 나타난 반면, 육류 섭취는 폐경 전후의 여성에서 모두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예방 인자로 보고한 과일 및 채소의 섭취는 한국 여성 유방암에서도 보호인자로 보이며, 기존 연구에서 영양소로 분석시 비타민과 섬유소의 섭취가 유방암 발생을 낮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 및 섭취 권장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식품 섭취와 유방암의 연관성에 관한 지속적인 역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